

부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성사! 정년연장 실현!

I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이번 파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운 부당함에 대한 저항입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이행, 불공정거래 근절, 노후소득공백 보장 등을 강력 촉구합니다.



I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김기호

현대자동차는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를 법망을 악용해 불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I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정진홍

현대자동차 자본이 로봇 및 미래산업 투자 비용을 납품단가 인하 방식으로 부품사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가 붕괴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제조 기반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섭니다.



I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강성호

기아차지부는 정년퇴직에 따른 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신사업 및 신차종 투자와 신입사원 충원, 그리고 그룹사 수직 계열화 노무전략 분쇄를 위해 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을 선언합니다.



I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이종철

현대차 사내 유보금이 101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회사가 이윤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상여금 50% 인상 요구합니다. 숙련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한 정년연장을 촉구하며, 공정 분배와 고용안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I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

현대차그룹의 최대 20% 원가 절감 강요로 인해 하위 부품 생태계와 노동자들이 극한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개정 노조법 2조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재벌 자본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정부 개입,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강력 촉구합니다.



“자동차 업종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원청의 사용자 책임, 정년 연장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정부가 계속 손을 놓고 방치한다면 이 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6. 8. 19.)